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

2019.12.18. 10:00  
웨스틴조선호텔

# 축 사

2019. 12. 18.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0일 오픈뱅킹 시범실시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간 3백만 명이, 7백만 계좌 이상을 등록하였습니다.  
오픈뱅킹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완하여  
전면시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뱅킹을 준비해 오신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님과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님,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픈뱅킹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님과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결제망 개방과 이용료 인하에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그간 오픈뱅킹 구축을 주도하신  
18개 은행 행장님들께 특별한 감사말씀 전합니다.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핀테크 기업 대표님들도 환영합니다.

## **II. 지급결제 분야 변화의 흐름 : 효율과 안정, 그리고 개방**

역사의 발전에는 대변동\*(upheaval)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제도나 기술 측면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전환점  
[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금융환경 전환기에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와 기술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급결제는 13세기 무역과 상업의 발달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자간 또는 원격지간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20세기에는 IT기술 발전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이 전산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과 함께 지급결제수단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급결제는 다시 대변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을 관통하는 흐름은 개방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발판으로  
지급결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은행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결제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Ⅲ.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

---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은 데이터 개방과도 맞물리면서 오픈뱅킹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단순한 결제시스템을 넘어  
금융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금융분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EU와 영국은 은행권에 계좌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 ① EU : PSD2 시행('18.1월)을 통해 EU 내 모든 지급결제 계좌에 적용
- ② 영국 : 9개 주요 은행에 고객동의시 잔액·거래기록 정보 등 계좌정보 의무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픈뱅킹 출범을 기점으로  
금융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오픈뱅킹이 은행의 계좌정보만을 공개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체기능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일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오픈뱅킹은  
금융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은행과 은행,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적 협력(Coopetition)을 유도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이 촉발되고  
역동성 있는 시장생태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동인(動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banking(Banking as a Platform, BaaP)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금융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핀테크 기업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망과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확대되면  
편리성과 선택권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 Ⅳ.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 파이낸스를 향하여

---

오픈뱅킹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픈뱅킹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기능 측면에서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데이터산업·전자금융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입니다. 오픈 파이낸스의 시대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좋은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등 서비스의 혁신성, 편의성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지급결제 분야의 고속도로 구축에 매진해 왔다면,  
이제는 안전한 고속도로 운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결제 인프라 운영에 있어  
신뢰와 안정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철저한 보안점검, 일간 출금한도 제한,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방안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는 철저한 안전과 보안이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오픈뱅킹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U, 영국 등의 법제화 사례를 참고하여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쟁에 따른 구성원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쟁이 혁신의 피로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장님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V.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모두의 노력

---

정부는 지난 4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오픈뱅킹을 비롯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에는  
실패를 인내하는 투자와  
시장확대를 위한 해외진출이 필수적입니다.  
금융회사가 이끄는 핀테크 랩과 핀테크 혁신펀드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픈뱅킹은  
핀테크 생태계에 활력과 창의를 불어넣는  
촉매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오픈뱅킹과 핀테크 생태계를 기반으로  
금융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